



조선인민군 단크-장갑차 사령관 최포력 중장.

최표덕 장군.

1

1941년 6월 21일이였다. 사라도브 단코사단 제1연대에 단코 중대장 최비보르크 이와노비치 상위는 벌써 연삼일 회 하기 정기유가중일에도 불구하고 « 어디든지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라라 » 는 상부명령에 의하여 집에 있는수밖에 없었다. 최상위 가정에는 부인 예브게니야 비바블로브나와 18세되는 딸 니나와 (차후 북한 고위급 간부 허가이북인) 둘재 딸 류다 형제가 있었는데 양아버지는 당년 9세였다.

10년제 졸업시험을 최우등 성적으로 본린 니나는 졸업식 연회에 부모들을 초청한다고 하면서 다비치와 어머니를 재촉하였다. 최상위와 예브게니야 비바블로브나는 졸업식 연회에 참가하면서 난생 처음 커다란 기쁨을 느끼였다. 그래서 니나는 최우등 성적으로 공학을 졸업하였지, 금메달을 수여받았지 그메다도 학교교육소베트의 명의로 교장선생의 최상위와 예브게니야 비바블로브를 따듯한 말뚝으로 축하까지 해주었으니 어쩔없는 영광이였다.

6월 22일, 바로 그여름날 아침 일찍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전쟁>, <전쟁> 하리 서로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최상위에게 있어서도 독노전쟁이 시작되였다. 최상위는 눈물에 젖은 아이들과 부인과 작별하면서 « 만일 전선에서 나에게 대한 소식을 없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빠가 제신 크를오르다로 가오 » 하고 부인과 아이들은 어르만러 류다를 전방으로 출전하였다.

최비보르크 이와노비치는 1905년 9월 12일 (양력)

으로 10월 6일), 소련 원동 변경 백코롭가 구역 공^작대
장 재논 베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1919년에 공청회
에 입회하고 1922년에 향촌에서 중학을 졸업하였다. 소비에
기관 건설사업관 공청회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1925년에
백코롭가 구역 공청위원회는 그를 모스크와 국제 사관
학교에 파견하였던바. 1928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필하고 원동 우수리스크 76 연대 소대장으로 임명되
여 소련군대 군관어 된 공지를 지내고 군대복무에 충실하
였다.

1929년에 일제의 조정하에 중국 백제군이 도발한
전쟁^에 참가하여 자기 구분대를 영웅적으로 지도하여 활반
시까지 진출하였다. 이 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최중위^는 붉은
별 훈장을 수여 받았다. 중동철도 사변은 최중위에게 있어
서 크대한 시련으로 되였으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받은
교훈은 자못 컸다. 바로 어전 캄에서 최상위는 전후세
대를 받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군사청호가 승급되며 상
위가 되였으며 직품도 높아져 중대장이 되였다. 그후 이어
그는 전후평원이 있는 군관으로서 1930년에 레닌그라드 당
코 장감화 군관학교에 파견되여 1932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1938년에 원동 변경 하산노 부군에서 일제군과의 전투에서
도 최중위^는 중대장은 소련 당코의 위력을 빛나게 시위
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이때는 역사적 환경으로 보아서 아주 불리한 시기
였다. 1937년에 전체 고려인들을 정치적 불신임자로

원동으로부터 강 레이주한후 1938년 말에 최상위에지도³
일본간첩이라는 누명을써워 그를 검거 투옥하였다. 최상위가
검거되자 범동설화에 안전기관은 그의 가족을 근관 사택
지역에서 돌리면서 당장 이지방을 떠나라고 하여 예브
게니아 비바블로브나는 아이들을 다리고 하는수없이 친척의
집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한 죄도 없이 허위날조
에 의하여 감옥에서 심의받던 최상위는 일년후 1939년
11월에 무죄석방과 함께 복대되어 자기부대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가족도 데려오게 되었으나 그도 역시 강주히 안전
한 생활은 안되었다. 이런 시련을 헤쳐낸 최상위는 또다
시 소련 조국전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출전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하루는
예브게니아 비바블로브나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시군사 동원부로
불어 « 최상위가 중상당하여 보리소글렙스크 야전병원에 후송되
여 치료중이라고 » 전하였다. 예브게니아 비바블로브나가 백여
끼로 데리진골에 있는 야전병원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무
의식상태에 처하여 있는고로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몇달
후에 남편을 면회하게 된 안해는 눈물이 북을막아 아무런 말
도 할수라 없었다. 그후 건강이 회복된다음 5일간 검에와서
휴식한다음 다시 전선 자기부대를 찾아갔다. 사단 본부에
도착한 밤뜨르시와노위치는 적기훈장을 수여받음과 동시에
대위군사 칭호에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942년 2월에는 사단의 이동과 함께 신탈린그라드
서남부 하리꼬브 부근에서 깡까즈 대원유산지를 점령할
목적으로 공격하여오는 적들과 장기간의 맹렬한 전투결과

그들을 정의 소탕한후 1943년 초에는 쓰딸링그라드 북⁴쪽에
포위된 파호르대 소탕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한다음 또다
시 남쪽방향으로 전후서열을 이동하게 되었다. 최대위는
쓰딸링그라드 포위 특별작전에서 세원공노르 하여 적기
훈장을 수여 받는 동시에 공좌 군사칭호와 연대장으로 승급
되었다. 노워로시스크 해방전에 연임된 최중좌 연대는
연이어 13일간 가열한 전투를 진행하면서 적 해군 육전
대에 무티죽음을 주리는 하였으나 9월 16일 전투에서
최중좌는 또 다시 중상을 당하였다. 후방 야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최중좌는 군사칭호 대좌로 승급되
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10월 20일에 진행되는 야
전병원 검진위원회는 "현역복귀가 어려운 결론을 최대좌
에게 주었다. 이런 결론을 받은 최대좌는 다시 두도 지방
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회원후 모스크바 무력성 간부국
에 가게 되었다. 바로 간부국장 대기실에서 우연히 1938
년 하싼노 전투시에 연대장으로 복귀하던 땡크 장갑차군
당시 대좌를 만나, 그에게 일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현재 꾸르간 시에 자리를 옮긴 쓰딸링그
라드 땡크 장갑차군관 육군 교장 소장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그도 역시 전쟁초에 중상을 입고 현역에서 제명되며
군대 간부양성에 전역전심을 다하는때였다. 때문에 전
쟁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있고, 영웅무쌍한 땡크병장이며,
정직한 군관인 최대좌와 같은 교관들이 소장에게는
극히 필요하였다. 소장의 초청을받고 꾸르간시로 간부양
성에 몰두하기로 결심하고 갔다. 모스크바 무력성에서는
최대좌에게 파견장리 함께 레닌 훈장을 수여 하였다.

귀르간 시에 도착한 최대좌는 권생애에서 비교적 평안
 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정과 함께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단시일
 이었다. 독소전쟁이 독일 파쇼 정체의 완전한 패망으로 종결되
 자 1945년 말에 최대좌는 소련 무력상의 명령에 따라 다시
 평보리에서 원동변방 제25군단 1118 중대 중 산하 중대군
 대장으로 배치되어 조선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

1945년 8월 9일에 시작된 조선해방전쟁은 소련군 원동변방
 제1 전선의 주동적 역할을 한 제25군단은 치스자코브 대장의
 지휘하에 일본 광둥군을 패망시켰던바 소련군은 이 전쟁에서
 2만 2천명의 사병들의 생명을 대신에 만국과 북한을 해방
 시켰다.

평양에 도착한 최대좌는 또 다시 소련 무력상의 명령에 의
 하여 모스크바에 도착되었던바 무력상은 최대좌를 소
 련군 양교장감취군 아카제리아에 파견하였다. 최대좌는
 이 군사고급대학을 1948년 8월에 졸업하고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원인군 양교장감취병총국 총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당시에 바로 최대좌에게 향하여서는 또 다시 단기간이나
 라 안전한 생활의 틈이 보장되어 소련으로 불어 가족도
 평양에 데려왔다. 가족과 함께 안달 니나 비베드로
 브나도 평양에 오게되었던바 당시 27세되던 그는 벌써
 2년전에 홀애비가 되고 당년 40세가 된 허가이에게
 시집을 갔다. 이리하여 북한의 제 2석을 차지한 허가이
 는 최 백트르의 사위가 되어 아주 현실화하게 지내었
 다.

1948년 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거하자 총교장 최

별다른 대과는 조선인민군 단코 장갑차병 총족 극장으로
전적되었는데 노장형호를 수여받았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전쟁이 개시되자 인민군 단코 장갑차병 총족은
인민군 단코 장갑차병 사령부로 개칭되고, 최소령은 중장
으로 승급되었으며, 직책은 단코 장갑차병 사령관이였다.
최필덕 장군은 지휘관으로서, 인간으로서, 동지로서, 친구로서
몹시 소박하였는데, 진실하였는데 가까웠하였다. 어떠한
성실한 사람도 북한이 도발한 북정의의 전쟁에 참가한
남어지 월인독재에 의하여 한압까지 되며 소련으로
떠나오지 않을뿐 안되었다.

최장군이 한압당한 기본스점은 그가 자기 싸우 허가이
안살권에 간섭하였다는 것이다. 그 간섭이란 것은 - 허가이
안살당한 1953년 7월 25일 새벽 7시에 인민군 총
참부 일반총부 참모관관이 전화로 ~~사령관~~ 동지, 내각
부속상 허가이가 지난밤에 자살하였읍니다. 하였다.

북시에 이런 전화홍보를 받고 보니 최장군은 기가 딱 막히
였다. 아니, 어저녁에 8시부터 밤 12시까지 허가이씩
전시용 임시 대외도사행에서 그의 말싸우 황금철이와
함께 저녁식사도 같이하고, 약주도 조금씩 만이면서
휴식하였는데 그때에 허가이는 농언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은 사람은 31명이지만 호상관계상 보
다면 장인 2명, 싸우 2명 4명으로 계산된다고 하현
서» 웃었다. 만약에 그날밤에 자살할 계획을 가진 사람
이라하면 어떠한 수심을 떠는 순간이 보였을것인데 그
러한 기색이라고는 전혀없고, 아주 건전하고 생기있고 명량

한 기분으로 우리들은 내려왔다.고 하였다.

아침 7시에 전화를 받은 최사령관은 죽은 시체라도 내려온 허라이 자택에 갔으나 집안에는 사람도 물건도 전혀없는 변사처이었고 다만 주변에는 새로 교체된 브 초병 3명이 와있었다. 사령관은 그 즉석에서 전화로 최근 사령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 «내가 죽은 사람의 장인인데, 왜 나의 허가로 없이, 또 가족도 그를 다시 볼수 없게 밤으로 그렇게 조금하게 매장할 리유는 어디 에 있으며가? 그이가 살아서 될때에는 수상등의의 복하시란 그이가 죽은다음 그의 시체야 가족이 처리 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는 국가 고위급간부였는데 그의 자살원인라 경로를 해명해야 할 국가 안전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부?»고 묻는 최장군의 질문에 법치국 최고간부, 북한공산당 총비서 김일성이 대답하기를 - «자살한자에게 무슨 안전위원회가 필요한가 하며, 당신은 필요없는 공갈은 그만두고 어서리 불러서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이 사변이 었은후 2일이 지나자, 7월 4일날, 아침에, 이날은 바로 호모일이 되면서, 최장군은 아침에 조금늦게 사령부 사무실에서 나가니 사령부 참모장은 보고하기를 최근사령관의 명령령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는것이였다. 최사령관은 벌써 독생각으로 예 속하니면서 봉투를 개봉하니 벌써 7월 3일부로 김일성이 최장군을 해임하였던 것이다.

무법천지, 일연 독재 4라, 북한에서는 누구하고 그에놓한

일을 (누구하고) 상론할 사람도, 끝도 없는 환경에서 그 진리를 따라다니는 싸움 허가어 모양되는것보다, 조국을 떠날일을 생각하니 눈물어 흘렸지만 하는수없이 또다시 소련에 도라가야만 들어나 약육하며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두집아녀들(허가어가 정까지 8명과 여중 2명, 10명식구가 조국땅을 등지고 압록강을 건너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소련 무력성은 소련 공산당의 성실한 아들이보 소련 조국전쟁 시기에 용감하게 적과 싸운 전보전 인민의 충신인 최장군을 아국 영예롭게 맞았어였다. 그와 그의 복인에게 이어 연금을 지정하여 주는 한편 사색문제도 해결하여 주었으며, 어룡돌리 아이들의 취직문제 공복하는 문제등을 전부 다 해결하여 주고 최장군에게는 또다시 군사고급지휘관 아카제미에서 공부할권을 권고하였다. 무력성 간부부는 말하기를 권력 전술에 대한 같은 상식은 어느때편지 방해되지 않을것이나 많이 배워두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최장군은 무력성 간부부 파견대로 고급지휘관 아카제미에서 1955년에 졸업하고 무력성 총참모부 지도관열종목에서 김철원으로 1960년까지 일하고 1961년부처 완전히 연금생활로 넘어갔다.

그는 연금생활에 넘어갔으나 자기의 풍부한 전후 경험과 과거 기관을 지낸 경험까지 소유한 유능한 교육자 감사로써 종 " 각종 군사대학들에 감사로써 초청받았으며 종전에 자기가 복무하던 군부대, 연함부대로라 교육기관 종합훈련을 목적으로 무력성 총참모부 조상항들에 초청되어 출연하곤 하였다. 그런 사병을 목적으로하고 따유게는 시어로 모차나 왔다가 이골에 살고 있는 권북한 출신 간부들도 많이 만나서 우열간식 후식하며 가곤하였다. 특히나 라유게는로 모실 때에는 예쁘게야 비바블로브나도 동반하며 모시곤 하였다.

이렇게 최룡석 장군은 일생을 파면 장군답게 가이한 시기와
 환경에서 5차례 걸쳐 전쟁에 참가하여서 영웅 무쌍하게
 싸움과 함께 수차 경상, 중상을 당하여 피도 많이 흘리면서
 고난 고초를 많이 겪었으나 김일성에게서 받은 고난 고초는 난
 생 처음이었다. 그러나 최장군은 그때도 낙심치 않고 정이
 는 어느때든 용리하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늘었다
 최장군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출로를 얻어내는 꾸준하고 끈기성
 있는 성숙된 간부로써 진실한 동방예의지국의 추존답게 살았
 으며, 복무하였으며, 전우들과 후손들의 존경속에서 기쁨을 누리
 였다.

그리 가늠에는 레닌훈장 1개, 적기훈장 2개, 적성훈장 2개
 조선 인민공화국 국기 훈장, 자유독립훈장 2개, 몽고 인민공화국 훈장
 과 수많은 메달도 얻어 받았고 없었다. 최룡석 장군을 자나 깨나
 조국을 그리워하였으며, 조국의 조속한 통일 갈망하고 살았다.
 그는 큰딸 - 44 베베르로브나가 1972년에 마음고생
 으로 인한 중환 끝에 50세를 일기로 사망한 다음 중
 환에 걸려 1973년 2월 18일에 모스크바에서
 별세하였다. 그후 예브게야 비하블로브나도 1975년에
 사망하시던 해에 모스크바에 작은 딸 류드미라 베베
 르로브나와 최장군의 남내 아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자기 조상들의 고향과 일궜이 여인 자기 부모들을
 기리면서 살고 있다.